

2009

# 그림비

2009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 I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지식정보학부
- II 백화만발(百花滿發) .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
- III 2009년의 지식정보학부
- IV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V 다사다난(多事多難)의 2009년
- VI 해피엔딩





〈내림비치〉

'그림비'란 순우리말로 젊은이, 청년을 뜻합니다.

**I.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지식정보학부**

1. 1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강단으로 돌아오신 강순애 교수님을 만나다
2. 전임교수님으로 임용되신 정경희 교수님과의 만남

**II. 백화만발(百花滿發).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

1. 지정과 87학번 김임숙 선배님과의 인터뷰
2. 대륙으로 간 지정의 사절단 고우정학우와의 인터뷰
3.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학업의 길을 바꾼 정휘석 학우와의 인터뷰
4. 해외봉사단원 최가현 학우와의 인터뷰
5. 학교의 숨은 일꾼, 근로장학생 이백록 학우와의 인터뷰

**III. 2009년의 지식정보학부**

1. 지정인 사진첩
2.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가다. 농민 학생 연대 활동.
3. 이등병의 편지
4. 남학우들의 어울림의 장, 소모임 '마밭'
5.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제 26 대학생회의 글

**IV. 다사다난(多事多難)의 2009년**

1. 바보 노무현, 우리 곁을 떠나다.
2. 해를 베어물다. 개기일식
3.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4. 미디어법 권한 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5. SARS에 이은 새로운 공포 신종플루

**V.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VI. 편집부원 그림비 마감 후기**

## 1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강단으로 돌아오신

### 강순애 교수님을 만나다

김영은, 배우리, 이수연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 1. 1년 동안 잠시 학교를 떠나 계셨는데요.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2008년 2학기부터 2009년 봄 학기까지 연구년을 다녀왔어요. 연구년을 시작하면서 북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을 돌아보면서 1년간의 새로운 생활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낙원동 종로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내고 그곳에서 1년간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인사동과 인접해 있어서 생활환경이 인사동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게 되니 아주 색다른 곳에서 커피를 마기도 하고 다른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만날 시간의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공 이외의 책을 많이 읽었고, 한국학전공자들과 소그룹을 하면서 관련된 곳을 여행하는 일도 좋았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분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철학분야와 한국학분야의 분류영역을 맡아서 일을 했고, 다른 분류위원들과 함께 한국십진분류법 제 4판을 수정하여 5판을 완성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출간예정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의 수정판을 준비하면서 서지학분야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역관 이언진의 필적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4명 공저로 『이상익복-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중 절강대학에서 열리는 한국학 국제대회의 발표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맡았던 한국기록관리학회장의 일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의 연구소와 함께 하는 2개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교 밖에서 자유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 2. 요즘 대학생들과 예전의 대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나요?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이나 예전의 대학생들이나 배움에 대한 열의는 똑 같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 세대는 책을 많이 읽었다면 요즘 학생들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환경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컴퓨터분야가 발전해서 전공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공부를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부 학생들이 컴퓨터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창의력 있는 공부를 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책을 읽고 사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전공 외에도 여러 분야(한문,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지식이 해박하신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공부한 것은 문헌정보학이지만 석사과정부터는 서지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는 여러 주제에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평가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다 보니 그런 것인가 봅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리 보이는 것이겠지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공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4. 우리 지식정보학과의 간략한 역사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는 1980년 10월에 학과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7년에는 서울지역에서는 최초로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9년 3월부터는 학부제실시로 사회과학대학에서 인문과학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고 사학과와 함께 인문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계열모집에서 학부제로 개편되어 기록관리학 전공을 신설하여 지식정보학부로 바뀌었습니다. 1999년에는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석사를 배출하였고, 2006년 1학기부터 박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08년도 1학기부터는 석사과정에 기록관리학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에는 여러 분야의 전공교수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며 문헌정보학의 여러 전공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졸업생도 이제 1,000여명을 넘었고, 이들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전공현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2010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도 어떤 일에 한 평생을 오롯이 바친 세월에 비길 만합니다.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는 각 시기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학과를 잘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및 동문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정보학부는 지금부터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학과의 새로운 비전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 5. 지금까지 해 오신 연구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구나, 개척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지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1994년 한성대학교에 부임하고는 체계서지학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중국의 관수목록, 사가목록, 사지서목과 한국의 초조대장경목록, 고려국신조대장경정별록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판본학연구는 발굴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척되면서 월인석보 권 23, 권 20, 권 15, 권 25, 권 13, 권 14 등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 능엄경, 근사록, 이상 이언진의 해람편, 언해두창집요 등을 발굴하여 연구하였고, 영광 불갑사의 사천왕상 및 순천 송광사의 사천왕상의 복장물 등을 발굴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고문헌의 조직과 관련하여 고문헌, 고문서, 민간기록물, 지방사아카이브의 DB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서는 인쇄문화사를 초기에 번역하였고, 월인석보 권 20과 권 25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교재로는 서지학개론, 기록관리론의 부분집필에 관여하였고, 고문헌의 조직과 정보활용은 몇 차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다른 대학 연구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몇분 교수님들과의 협력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제적인 연구가 더욱 많아져야 하고 서지학도 한국학과의 통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의 흐름이 국제적인 연구의 흐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하고 싶은 분야는 별도로 없고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정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강순애 교수님께 일단 감사 드립니다^^ 수업시간에 평소 카리스마 있고 열정적인 강순애 교수님의 모습만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교수님의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 연락 없이 무작정 찾아갔는데도 편집부 그림비 인터뷰를 부탁 드린다는 말씀에 흔쾌히 승낙해 주심은 물론 지난 호 그림비를 보여주셔서 저희와 함께 의논해 주시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이 혹시 이상하진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부족한 질문에 알찬 답변으로 대답해주셔서 기사의 완성도가 한층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단에서 쫓겨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 전임교수님으로 임용 되신

## 정경희 교수님과의 만남

김재오, 박혜정 (지식정보학부 09학번)

### 1. 이번에 정교수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다니던 모교에 교수로 왔다는 점에서, 내가 졸업한 모교에서 강의 하는 것과 교수생활을 하는 것을 졸업한 동문 그리고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또 내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후배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 2. 정교수가 되기 전과 정교수가 되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 있나요?

정교수는 전임교수라고 하는데 나는 강의를 시작했던 초창기 90년도부터 대학기 모교, 즉 한성대학교에서 수업해왔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나 강의하는 것이 익숙하고 특별히 전임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네요. 달라진 점이라면 약간의 부담감이 생겼고 10년 넘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한다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년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똑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 3. 교수님이 연구하는 학문과 그 분야에서의 목표는요?

나는 저작권에 대해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논문도 저작권에 대해서 썼어요. 지적재산권의 사용과정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학위논문을 썼는데, 나는 비영리적 저작물의 유통이 다른 방식으로 유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물 유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엑세스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오픈엑세스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해내고 싶은 일이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비영리적 저작물의 유통을 오픈엑세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 4. 교수가 되신 계기가 있다면?

처음에 학교를 입학했을 때부터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수가 된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학교에 들어와서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에 들어와서 100 퍼센트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고요. 1,2 학년 때 당연히 학점관리는 하면서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항상 고민해왔고 3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아직 해야 할 것을 정하지 않았고 그런 쪽은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던 계속 학업을 이어가던지 나에게 필요한건 영어라고 생각해서 영어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때 공부한 영어가 원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4 학년 때 "내가 과연 문헌정보라는 학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4 년 동안 해온 문헌정보학에 대해 아쉬움을 느껴서 대학원에 가서 더 배워보자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문헌정보학을 더 배워보자는 생각이 교수가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5.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과(문헌정보)의 전망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학과에서 전공을 완벽하게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나 영어는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요. 지금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던지 자료의 처리나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공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준비를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 6. 선배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벌써 1학기도 지나가고 더 짧게 느껴지는 2학기도 거의 지나간 상태인데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친구들과 술도 마시지 말고 축제도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2학년들은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 정도는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공부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공부는 꼭 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3학년이 되어서는 구체적인 진로와 그에 맞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짧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사회에 나가 기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냥 놀기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전임교수가 되신 정경희 교수님을 뵈려 연구동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하고 색이 예쁜 국화차를 한잔씩 따라주시면서 굳어있던 저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며 먼저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아직 모자라고 준비가 부족한 저희 1학년들이 준비한 인터뷰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도 하셨지만 끝까지 선배로서 후배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모습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는 어렵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 4년의 시간은 정말 고민의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우리학교 우리 과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계신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하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는 해가 되어 서로에게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사제시간이 되었으면 좋습시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 우리학교 지정과 87 학번 김임숙 선배님과의 인터뷰 궁금해요 선배님!! Q&A

이주원, 박수현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 1. 우리 학과생들 거의 모두의 꿈인 사서교사를 하고 계신데 사서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후회스러웠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사서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학교도서관의 주 기능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도서관 내의 다양한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사서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학생과 교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여 만족스러운 수업을 해 낼 때이고, 사서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학교도서관의 기능이나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동료 교직원들과 일반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사서교사의 전문성도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시다. 그럴 때 많이 후회스럽더군요.

### 2.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만한 일들을 추천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헌정보학과 출신(저희 때는 문헌정보학이었잖아요, 호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관 종을 불문하고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서지사항을 제시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도서관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전문인, 성인, 유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각 대상의 지적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추천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에서부터 자료선정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활동도 많이 활발 해야겠지만요ㅋㅋ

또한 폭넓은 지식교류를 위해 타 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끼리 서로의 커리큘럼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아서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해요.

### 3. 문헌정보학과의 전망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교도서관에만 근무하고 있어 타 관 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공공도서관은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규직 사서교사든 비정규직 사서든 눈에 보이는 일자리는 분명히 학교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에서는 발 벗고 나서지 않죠. 그 이유는 현장 교수님들의 전공인데요, 즉, 학교도서관 전공 교수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문정과 출신들의 진로를 서로 비교하는 한편, 현재 도서관계 현황에 관심을 가진다면 학과의 전망, 취업의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정보가 생명이에요^^

### 4. 후배들에게 학창시절 동안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앞으로 진로와 연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것이면 다 따두도록 하고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짜서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대학생의 본분입니다. 꼭 한 가지 조언은 3 학년 학생들이 2 학기 때 가는 졸업실습은 '큰물에서 놀아라' 즉, 규모가 큰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은 분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싶군요.

### 5. 선배님은 20살 때 어떤 대학생이셨나요?

그냥 편하게 대학생활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집을 잘 가기위해 대학진학을 했다' 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 없네요^^. 우리 동기(여자친구들)들을 보면 그랬던 것도 같은데요.

### 6. 돌아오는 11월에 동문회의 회장이 되신다고 들었는데 동문회가 뭐하는 곳이며, 앞으로 동문회가 재학생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동문회 활동을 못해 동문회의 깊이 있는 역할은 잘 몰라요. 동문회장직을 앞으로 수행할 때는 동문간의 친목도모 및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 . 주소록 정비 및 보완으로 동문 상호간의 원만한 연결망을 조직하고,
- . 년 2회 정기모임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 . 년 2회 소식지를 발행하여 서로 간에 근황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 . 년 1회 취업설명회를 통해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선후배의 장이 되도록 하고,
- . 교수님, 재학생 등 각종 경조사에 동문회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칙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7.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할 때 한성대라는 학벌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문헌정보학과내에서는 특별히 차별 받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학과의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대외적으로 한성대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요.

### 8. 사회에 진출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주로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문성(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에서 겪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문회 회장을 맡게 되셨다는 김임숙 선배님을 인터뷰하려 만났을 때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대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셔서 처음엔 긴장이 되어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동문회관련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인맥의 소중함에 대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도중에 어느새 긴장도 다 풀려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처음이라 질문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느닷없이 드린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도 먼저 유도해주시면서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학교수업에만 충실하면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왔던 09학번들도 더 이상 새내기가 아니라 어엿한 선배로서 미래를 향해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대륙으로 간 지정의 사절단 고우정 학우와의 국제인터뷰

이상혁 (지식정보학부 08학번)



###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2. 인터뷰 시작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넵, 저는 지식정보학부 07 학번 고우정이고요, 지금 교환학생으로 중국 장춘에 와 있습니다. (웃음)

### 3. 처음 듣는 도시인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장춘은 동북 3 성중 길림성의 성도입니다. 꽤 큰 도시고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장춘(長春)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따뜻한 도시 일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계절도 4 계절이라고 하지만 거의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은 아주 잠깐. 그래서 봄이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장춘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춘이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이곳저곳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대할 일은 아니지만 단수가 자주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요

### 4. 현재 장춘에서 다니는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장춘 세무 대학원' 이라는 곳인데, 세무학(稅務學) 전문대학교입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를 내세워서 학교 이름에 반영할 정도로 세무학 쪽으로는 중국에서 저력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아담하고 굉장히 예쁜 학교예요. 학교에서 집이 가깝던 멀던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전교생이 한 학교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 5. 아, 그럼 문헌정보학이 아니라 세무학을 배우고 계신건가요?

아니요. 저는 1 학기 동안은 중국어 어학위주로 수업을 들었고 2 학기에는 영어수업을 위주로 듣고 있어요. 장춘세무대학원에는 문헌정보학 수업이 없어서 학점인정을 받는 방법이 그 길 밖에 없어요.

### 6.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중국어는 많이 느꼈나요?

그냥 기본 일반적인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아직 완성된 실력은 아니라서 많이 늘었냐고 물으면 딱히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열심히 해야죠. (웃음)

### 7. 중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학교생활은 그냥 일반적이예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쉬고 그래요. 주말엔 학원 다니고요. 학교에 한국유학생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호의적이라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 8. 한국 유학생이 많으면 중국인들이 비호의적인가요?

그것 보다는 유학생이 많으면 신기함이 적어지니까 그냥 있던 없든 관심이 없는데 여기는 한국 유학생이 20 명 내외라서 아주 관심도 많고 호의적이예요. 그리고 중국은 정말 한류 열풍이 장난이 아니라서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은 편이죠.

### 9. 아 그렇군요! 그래도 중국분들이 호의적이라도 타국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마냥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그랬던지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음식도 동북지역 음식은 맛있는 편이었고요, 특히 가장 걱정했던 손바닥만큼 크다는 벌레들은 동북지역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6 개월 정도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음식도 너무 느끼해서 질리고 날씨도 너무 춥고 건조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곳이 지금 개발 중인 신도시 같은 곳이라고 위에 언급했듯이, 도로공사, 배수관 공사 등 각종 공사들이 참 이번년도에 많았어요. 그리고 저런 공사들을 할 때는 반드시 단수가 따라왔죠. 처음 단수가 됐을 때 한 1 주일정도 단수가 됐었는데, 그때 공지를 했는지 안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문맹의 시절이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도 종종 단수가 2~5 일 정도씩 됐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다 보니 안전문제와 금전문제는 항상 주의해야하죠. 택시를 타거나 물건을 살 때 외국인한테는 바가지를 종종 씌우거든요. 처음 이곳에 와서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돌아오는데 20 원이면 올 거리를 40 원이나 주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길을 다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택시 기사가 저희 학교를 가운데 두고 계속 뱅글뱅글 도시면서 40 원을 받. 소매치기등도 굉장히 많아서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털어가기도 하구요.

### 10. 한국에서 걱정하는 상황들이군요. 막상 중국에 살아보니 걱정하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중국인들을 보면 '짱 X 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많이 무시하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이 학교 안에서만 봐도 4 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이미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있죠. 제가 여기에서 사귀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어라면 한국어를, 일본어라면 일본어를, 영문과면 영어를 이미 원어민 수준으로 잘 해요. 지금 한성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있는 중국인들도 가기 전에 한번 봤었는데 다들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이제 2,3 학년 학생들인데 말이죠. 솔직히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토익, 토플 점수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화가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도서관에는 사람이 항상 많아서 자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 11.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교환학생은 일반 어학연수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학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국에는 문헌정보학과가 드문 것 같아서 학점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외국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하고, 지금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보다 생소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우분들이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호호

### 12. 동기들이나 친한 선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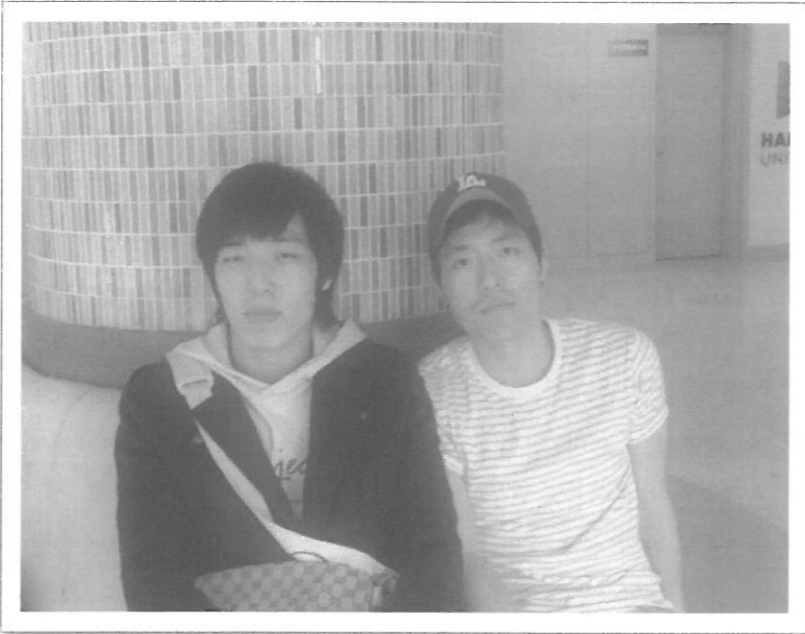
07 동기들은 휴학하지 말고 학교를 같이 다녀달라는 말을 하고 싶고, 동기들이나 08 후배들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힘을 줘서 타지 생활에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맙다는 맘도 전하고 싶네요. 09 후배들은 얼굴을 한 번밖에 못보고 와서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가면 어느덧 10 학번 후배들까지 오겠네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종플루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부디 건강들 조심하세요! 자세한 얘기는 한국에서... 음헤헤헤

외국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중국에 가있는 고우정학우님을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게 신기했다. 지면의 제한으로 나뉘었던 얘기들을 다 실지 못하는게 아쉽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정인들도 더 큰 것을 보고 경험하는 큰 목표를 가지기를 바란다.

## 이공계에서 인문계로 학업의 길을 바꾼 정휘석 학우와의 인터뷰

임우경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선배님을 만나기 전에 선배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이공계에서 지식정보학부로 전과했다는 것뿐이었다. 얼굴은 물론 이름도 몰랐다. 선배님을 만난 건 10월 1일. 미래관 지하에서 인터뷰를 했다.



**1. 이공계에서 전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무엇을 전공하셨어요?**

정보 통신 공학과였어요.

**2. 전과는 언제 한 것이지요?**

이번학기부터 지식정보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까지, 총 3학기 지내고 나서 이번에 전과 했죠.

**3. 전과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과)하게 되었어요.

**4. 그렇다면 입학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공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다가 내용도 어렵고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들어가도 좋은 대우 받기 어렵고요.

**5. 지식 정보 학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따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졸업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6. 지식정보학부는 본인에게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들 많아서 좀 낯설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2학년과목 뿐만 아니라 1학년 수업도 듣고 있는데, 강순애 교수님의 "서지학" 재미있어요.

**7. 전과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전과는 편입과 달리 시험 같은 걸 보진 않아요. 다만 신청 자격이 있는데, 학기당 평균 18 학점 이상으로 총 평균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돼요. 서류를 제출하면, 성적이란 다른 평가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죠.

**8. 전공을 변경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친구들이요. 이전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랑 다른 수업을 들으니까 만날 시간이 드물죠. 그리고 저보고 배신자래요. 여기(지식정보학부)는 여자가 많으니까 부럽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안 친하니까...(웃음)

**9. 전과 한 걸 후회하세요?**

아뇨. 전과한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극 추천해요.

**10. 하지만 전과하면 전공으로 배운 것이 일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전공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은 일반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전공으로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졸업할 때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1. 복수전공을 해도 수강 신청 시 적용되는 최대학점은 동일한가요?**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이나 기본적으로 20 학점까지 들을 수 있어요. 정해진 학점 내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되니까, 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양수업이 조금이고 전공수업을 많이 듣게 되겠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감안해야죠.

인터뷰라는 것이 처음인지라 정말 대책 없이 시작해서 정신없이 끝났는데, 갑작스러운 인터뷰요청에 친절하게 응해주신 정휘석 선배님과 함께 해주신 이인규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쫓겨서 앞으로의 일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 해외봉사단원 최가현 학우,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가득 안고 돌아오다.

서정인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오늘날 국제사회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공간적 거리의 의미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인적 이동,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 긴밀하게 이루어져 하나의 인류 공동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자신의 문화, 종교,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외봉사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국제교류와 평화의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성대학교해외봉사단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해외봉사를 다녀온 08 학번 최가현 학우님과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 1. 최가현 학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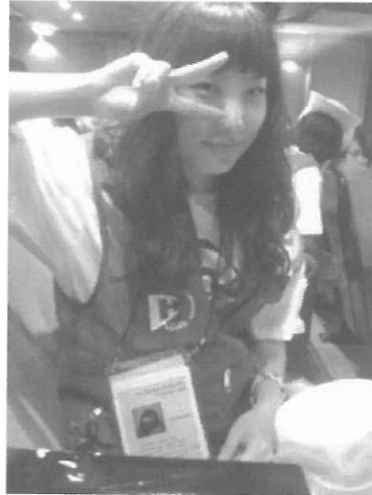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해외봉사단 7 기로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08 학번 최가현이라고 합니다.

### 2. 카자흐스탄은 어떤 곳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카자흐스탄은 아랄해 근처에 위치한 국가로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나라 중에 하나이며, 구 소련연방 해체 때 국가로 독립한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국가답게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가장 뜨거울 때는 40 도를 넘기도 했지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기 힘든데, 4~5 가구당 하나씩 있는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와 식수로 사용했었습니다. 음식은 기온차가 심해서인지 고열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양, 돼지가 식탁에 올라오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개고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고려인 마을이었는데 고려인 마을인 만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음식들도 있어서 놀랐어요. 오이소박이, 양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었거든요. 또, '사슬리' 라는 고기를 꼬치에 끼워 화로에 굽는 요리가 있는데 파와 식초를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서 기억에 남네요. 고려인들은 그들 사이에 서울네임이란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 같은 거였어요.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찾아와서 서울네임 같은 것을 물어보고 같은 성씨 사람끼리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고 되게 반가워하시는걸 보고 고려인들 나름대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걸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 3. 해외봉사를 가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해외봉사단 20 명이 가서 고려인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연령별로 네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맡았던 반은 5~12 세 반이었는데 주로 한국어, IT 교육, 체육, 미술을 가르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시내에 나가보거나 다음 공연을 준비하며 보냈고요. 한번은 아랄해에 갔는데 해(海)가 붙을 정도로 큰 호수와 바다가 겹쳐서 만들어진 호수라 물이 바닷물처럼 짠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 4. 해외봉사를 가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떠나기 전날을 한국의 날로 정해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한국음식, 포토존을 만들어서 부스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잡채, 컵라면, 떡, 전 등을 제공했는데 특히 컵라면이 대인기였어요. 저는 풍선아트 부스에서 꽃이랑 왕관이랑 검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오후에는 공연을 진행했는데 태권도, 댄스, 난타, 사물놀이, 부채춤, 노래 등을 했는데 난 댄스, 난타, 사물놀이에 참가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5 월 달부터 준비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웠고요. 마지막 무대를 끝내고 인사를 하는데 그 때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우리에게 울면서 작별인사를 했는데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어서 우리가 잠시 왔다 떠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정이 들어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5. 해외봉사를 다녀오시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현지 음식이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한국 음식과 비슷한 것들도 많고 특유의 현지 음식도 맛있어서 참 좋았어요. 고려인 마을이라 언어의 장벽은 거의 없었지만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4 세대 고려인이어서 한국어를 못하거나 서투르게 쓰는 아이들도 있어서 미리 조금 배워두었던 카자흐스탄 어와 제스처를 크게 하면서 진행하니 큰 무리는 없었어요.

###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해외봉사단 활동은 현지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제가 봉사를 하러 간 것이지만 오히려 봉사 받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외봉사단은 분명 힘들어 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이니만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만큼 다녀오면 어딘가 모르게 성장한듯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흔치 않은 경험이니만큼 학교 다니는 중에 한번쯤 경험해보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봉사단 최가현 선배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감기에 걸려 빨리 집에 가서 쉬셨어야 했는데 한 시간 넘게 지루한 인터뷰 때문에 잡아 가현선배님께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처럼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유용한 학교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외봉사단을 소개해주시며 자신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주셨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나의 절망스런 능력에 충분히 소화시켜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씁쓸하다. 좀처럼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은가? 해외봉사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르는 값진 경험을 소개해주신 선배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내년에는 나 또한 저런 특별한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인터뷰에 응해주신 가현선배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 학교의 숨은 일꾼 근로장학생 이백록 학우와의 인터뷰

홍승리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정보학부 07 학번 이백록입니다. 현재는 휴학 중이고, 입학정보팀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있습니다.

### 2. 휴학 중이면서 근로 장학생으로 있다는 것이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나요?

여름방학 때 근로 장학생을 시작했는데, 거기 계신 과장님께서 2 학기 때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는 휴학할거라 괜찮으시냐고 여쭙았는데 휴학생 환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겠다고 하니 시켜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입학정보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휴학생처럼 하루 종일 입학정보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 3. 학교 다니면서 근로 장학생을 하게 되면 힘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하셨어요?

저는 지금 휴학생이라서 학교 공부랑 병행하는데 있어서 힘든 점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학정보팀에서 하는 일이 입시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많이 바쁘더라고요. 전공적성검사 준비도하고 그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지고요. 아마 휴학하지 않고 근로 장학생을 하는 중이었다면 학업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4. 학교에서 제공하는 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가 근로 장학생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근로들이 있고, 그냥 기본 근로 장학생들은 시설지원팀, 입학정보팀, 미래관, 탐구관 이런 곳에서 일해요. 원래 국가 근로 장학생이 생기기전에는 도서관에서 우리 학과 학생들을 많이 뽑아줬었는데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뽑았던 거여서, 우리학과가 도서관 관련 학과이다 보니 많이 뽑아줬던 것 같아요.

### 5. 근로 장학생도 일반 아르바이트랑 비슷한 것이잖아요, 둘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난 근로 장학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 가능하거든요. 근로시간표도 수업시간표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나오는 날에만 근로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0 시간정도만 채우면 되거든요.

시급은 현재 4000 원인데 국가근로는 6500 원입니다. 입학정보팀은 주 20 시간 외에 추가근무하면 추가근무시급은 6500 원이고요, 적성검사나 실기고사 당일에도 학교 나와서 일하면 그때 시급이 8000 원입니다.

### 6. 근로 장학생 희망하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근로 장학생도 장학생 취급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한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생활 간접경험이나 똑같더라고요. 하는 일은 잔심부름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람들 사이에 관계 맺는 방법이나 상사를 대하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우게 되요. 이런 것을 미리 배워두면 졸업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분명 도움이 될 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생을 하게 되면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엔 이력서에 한 줄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절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인터뷰한 것을 보고 다른 애들도 기회가 된다면 근로 장학생을 한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있다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친절히 대답해줄게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질문마다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해주신 이백록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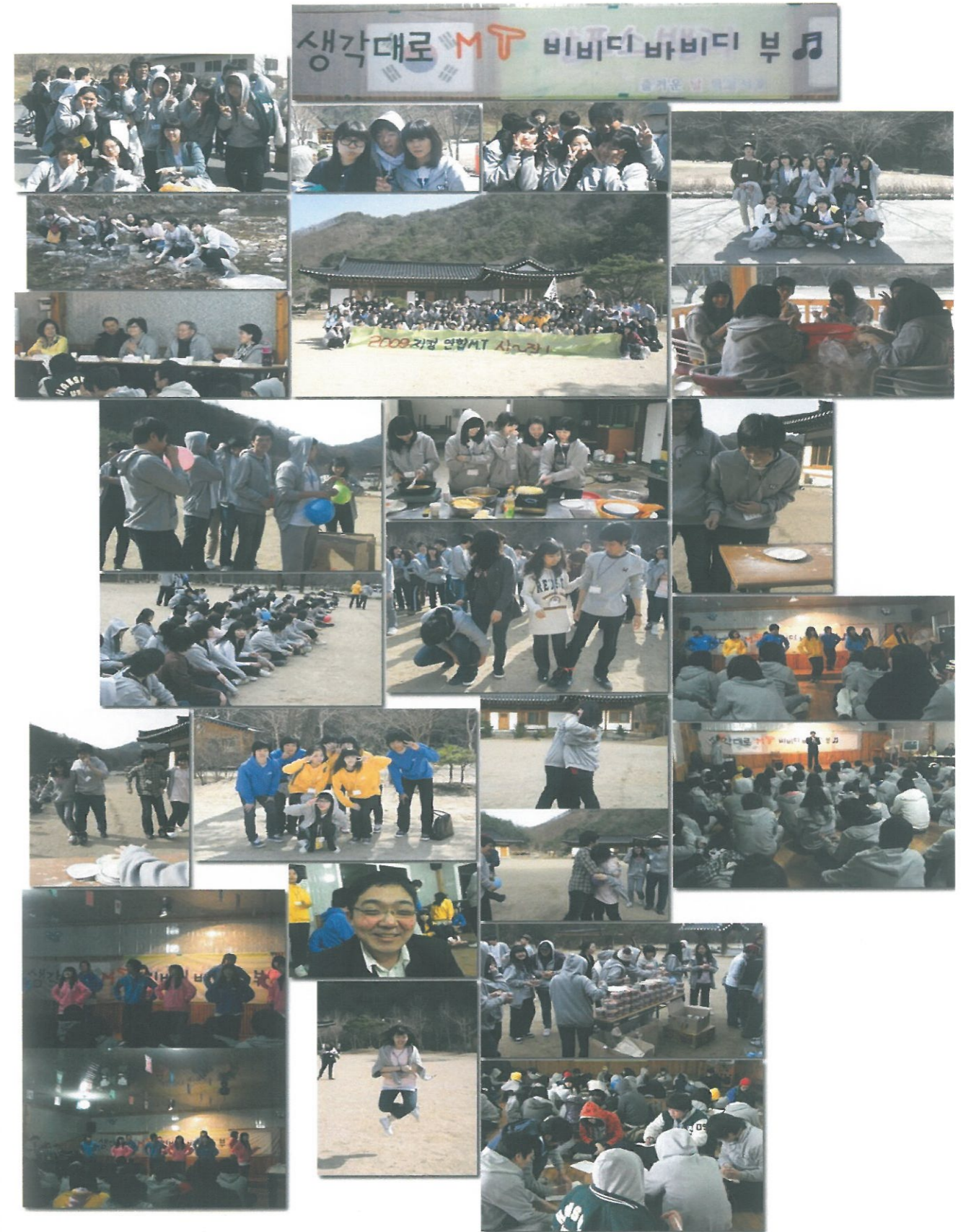
# 두근두근 예비학교



# 새내기 새로 배움터



# 신나는 연합 MT



# 절대지정 인대체전



# 우리들의 대동제



##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가다 농민 학생 연대 활동

강윤석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나는 이번 6월 25일~6월 29일 사이에 진천이라는 조금 특별한 곳을 갔다 왔다.

그곳은 4박 5일간 농촌체험을 하는 곳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농활을 지원했을 때의 생각은 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부족한 학점을 메우기 위한 조금은 불순한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갈 때에는 '아 4박 5일 동안 컴퓨터도 없는 곳에서 무얼 하지' 라는 걱정이 계속 들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바로 진천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자마자 느낀 것은 아 정말 공기가 맑고 산이 푸르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공장매연과 사람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여, 경쟁사회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한 순간에 맑게 해주는 곳이었다. 주민들도 정말 인심이 후하고 착했으며 우리들을 잘 챙겨 주시는 분이였다.

우리는 배정받은 숙소인 마을회관에 가서 짐을 풀고 마을사람들에게 드릴 부추전을 정성껏 만들어 한분 한분 집에 방문해 드리면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일 시키실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불러서 일거리를 달라고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마을사람들은 부담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분 좋게 농촌사람들을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목장갑과 토시를 하고 밭으로 향했다.

우리들은 비록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아카시아나무를 베고 포도 줄기 잡초를 맨손으로 뜯어내고 한성대운동장보다 큰 포도밭 줄기를 짚단으로 모조리 메우고 진흙탕 속에서 수박을 나르기도 했지만 인심후한 진천주민 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약간 힘은 들었지만 정말 보람차고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값진 것 같았다.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는 그 특유의 진천인심으로 우리들을 쉬게 해주셨고 맛있는 고기반찬도 손수 차려 주었다. 우리들을 농촌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각골난망하였다. 게다가 일이 끝난 후 마치 가족과 같은 같은과 동기 혹은 선배들과 함께 먹는 저녁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듯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골 야경을 바라보고 여름바람을 맞으며 가지는 술자리는 정말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다. 솔직히 지금 말하면 처음에 아카시아나무를 베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여길 왜왔지 1학점이 도대체 뭐 길래? 4박 5일 동안 맨날 이래야 하는 건가? '엄마가 보고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다 같이 지냈던 그 시간이 그립고 또 소중한 걸 느꼈고 좀 더 지식정보학부가 푹푹 뭉쳤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경험하여 선배님,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생각이 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또한 우리는 5일 잠깐 동안의 고생이었지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들이 먹는 사과나 포도 수박 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이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번 진천에서의 농촌활동은 2009년 중에

최고로 힘들었고 최고로 좋은 경험이었으며 최고로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번 년도 최고로 보람 있고 값진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날만큼 쓸모 없는 일만 해왔다. 그런데 이번 농활을 통해 주민 분들도 도와드리면서 내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만족감이 들었다.

이번 농활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나는 내년에도 주민 분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참여하기 위해 농활을 지원 할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내내년에도 농활을 가고 싶다. 아마 농활을 한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같이 갔던 선발대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발대 김중겸 선배, 이상혁 선배, 심혜인 선배, 신가희 선배, 전슬비, 김미래, 이형근, 장승우 이분들은 4박 5일 동안 나의 형제요 아버지요 어머니였다.

나는 다시 한 번 이분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 이등병의 편지

### 08 학번 이치훈 학우의 글

이제 2 주차 훈련이 끝나갑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군대 간 지인들에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드디어 사격을 해봤습니다! 총이 자그마치 3.2kg 이라던데 하루종일 그 총을 들고 있으니 팔이 빠질만큼 고통스럽더군요. 진짜 엄청나게 무거워요. 총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1m 남짓 되는 그 총에서 나는 소리가 흡사 대포를 쏘는 것처럼 귀가 아파요. 그 총을 10 발 한번에 쏘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오늘은 화생방 훈련을 하고 왔어요. 원래 다음 주에 하는 건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화생방이란 곳에 들어갔어요. 희부연 가스가 가득한 천막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 떨렸어요. 아마 군대에서 가장 긴장한 순간인듯 싶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제 방독면이 불량품인거예요. 방독면이라고 썼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고 진짜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나와보니 1 분도 안되는 시간이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화생방에 들어갈 학우들의 표정이 기대됩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건데 학교 다닐 때 초동안이라고 칭송받던 얼굴이 군대에서도 통한다고 자랑하고 싶네요. 여기서 제가 받는 칭찬이 크게 3 가지로 나뉘는데 동안이다, 잘생겼다, 서울사람이라 웬지 멋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 다니던 바깥 세상이 그립고 모두들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모두들 볼 날이 오겠죠? 그날 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 08 학번 김민호 학우의 글

길고 긴 여름이 끝나고 약명 높은 유격훈련도 꾸역꾸역 어떻게 받고 나니 시간 안가는 8 월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선 방학이라고 실 텐데 말입니다. 벌써인지 이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제대가 1 년 남는데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나름 군대에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동갑에 벌써 병장인 사람들도 있고, 늦게 입대했지만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게 많은 사람도 있어서 부럽네요. 여기서 주중은 일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은 참 빨리 가는데 주말만 되면 TV 를 보면서 떼굴떼굴 시체놀이를 하다가 지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나 딸까 생각 중 인데요, 간부들이 많이 따드라고요. 필기에 합격하면 성현선배가 있는 건물에서 요리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튼 9 월 중순을 넘어가니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날씨가 쌀쌀해 지는데 환절기 감기조심하기 바랍니다.

### 08 학번 민현기 학우의 글

깨끗한 연천땅 공기를 마시며 어느새 일병 첫 달째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신병위로유가를 지난 7 월에 나갔었는데, 밖으로 나가니 마냥 좋더군요. 제가 지금 군인이라 그런지 밖에 나가니까 자꾸 군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대마크는 어떤건지, 계급은 뭔지 등등 전에는 군인 신경도 안 쓰고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신기했습니다. 지나가는 군인 중에 예비역 마크를 달고 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이등병 마크를 달고 가는 사람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군인이 된지 달수로 7 달째인데도 아직 새롭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직책은 사수로 맡았는데 포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포 정비를 사수들과 화포정비병이 하는데 막내라서 손에 구리스, 솔벤트가 떨어지지 않는 날이 없네요. 그래도 정비하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기계와 친해지는 일이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구리스를 만지면 어찌나 끈적거리는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색은 정말 예쁩니다. 보랏빛인데 그 색만 따로 가지고 싶을 정도로요. 솔벤트는 기름이랑 구리스를 닦아낼 때 쓰는 것인데 휘발성이 강해서 겨울에는 손이 가뭄에 눈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 같아요.

요즘엔 브아걸의 주문에 빠져들어 열광하는 중입니다. 티아라도 좋고, 군생활에 낙이죠. 음악프로그램 기다리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관심이 없던 분야의 책들도 읽으니 재미있어서 군생활을 하면서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우연처럼 던져진 우리의 존재는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운명으로 전환된다.’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정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선임, 동기, 후임, 간부에 나이, 성격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하나 맞추는 건 좀 힘드네요.

군무를 설 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후회되는 것도 아쉬운 것도 많네요. 이렇다 보니 인생을 좀 더 잘 살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임머신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등병을 다시 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 남학우들의 어울림의 장 소모임 '마라도나의 발가락'

이상혁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1. 그림비 11 월호에서 나온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지식정보학부의 유일한 소모임인 마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먼저 간단한 본인의 소개와 마발이 어떤 소모임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윤태중이라고 합니다.

마발이란 마라도나의 발가락의 줄임말로써 우리 과 선배님, 동기들, 새로 들어올 후배님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학우 분들이 모여 축구를 통해 친목을 다지기위해 만든 우리 과의 소모임입니다.

2. 마라도나의 발가락이요? 이름이 참 웃긴데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보면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동기들끼리 소모임의 이름을 정하자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거창한 이름이 마구 튀어나오던 중에 누군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축구 실력이 마라도나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주제에 이름만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고 말을 꺼냈는데 모두들 마라도나 발가락에 웃음이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마라도나의 발가락이라도 따라가자! 라고 결의해서 마라도나의 발가락, 줄여서 마발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썸 웃기죠?

3. 아 그럼 마발이 원래부터 있던 소모임이 아니라 근래에 새로만 들어진 소모임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과에 지금 마발처럼 축구를 좋아하고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저와 제 동기들이 포함된 소모임인 마발은 08 년도에 저희의 주도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모이던 축구 모임보다 마발이란 이름으로 모여서 축구를 하고 활성화된 것도 08 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4. 명실 공히 지식정보학부를 대표하는 축구팀인 셈인데 전적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총 전적부터 말씀 드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7 전 4 승 3 패입니다. 승률은 50%가 조금 넘네요. 아 물론 이 전적은 대외적인 공식경기 결과이고요 비공식경기까지 합치면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웃음).

5. 공식 경기에서 낸 가장 좋은 성적은 어떤 대회에 몇 등인가요?

아무래도 작년 인대체전 때가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VS 국문과와의 경기에서 2:1 승, 결승에서 VS 영문과와의 경기에서 3:0 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우승을 하였습니다. 제가 골을 넣었던 경기들이라서 그런지 잊을 수 없는 시합이네요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쓴웃음).

6. 2009년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올해요? 흠..... 같이 응원 안하셨나봐요? (웃음)

안타깝게도 2009 년의 전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인대체전과 낙산체전 모두 합쳐 1 승 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온 09 학번 후배님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회들이 아니면 아무래도 학번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기에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 저야 당연히 같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올해에 보니 작년에 뛰던 멤버들과는 다르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9 년도 2 학기 현재 구성원들이 학업 취업 군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07,08 학번의 경우 주현권, 서창호, 박태진, 신승훈, 이지훈, 김민호, 권승규, 김중겸 등의 학우들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여 현재 군대소리가 2 년 계약으로 임대중인 상황입니다. 이 멤버들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대표 팀 용병으로 차출예정입니다.

8. 많은 선수들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아는 한에서 베스트 11 을 뽑아주신다면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인가요?

베스트 11 이요? 아.....부담스런 질문이네요 (웃음)



- 김현준 (09)
- 이민규 (08) 장우영 (04) 이종윤 (04) 신승훈 (08)
- 유우진 (06)
- 김동혁 (05) 이동수 (07)
- 윤태중 (08) 김영기 (09)
- 정병수 (04)

지금 정하자면 이 멤버 정도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보고 빠졌다고 마음 상할 것 같은 학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호흡을 자주 맞춰보고 경기를 같이 뛰어본 사람 위주로 뽑은 것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9. 본인은 빼놓지 않으시는군요 (웃음) 혹시 마발에 들기 위한 가입 요건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가입요건은 따로 없고 지식정보학부 남학생이라면 누구든 자동가입되어있습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지정과 학생이라면 더더욱 환영합니다.

내년에 자동가입 될 10 학번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터뷰를 슬슬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마발이 좋은 성적을 내고 소모임으로써의 친목도모역할 또한 잘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시종일관 성실한 대답을 해주신 윤태중 학우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제26대 학생회의 글

### 2009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장 이경민

안녕하세요. 제 26 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장 03 학번 이경민 입니다. 어느덧 공사다망했던 2009년도 2 달 남짓 남았네요. 처음 09 학번 여러분들과 만남을 준비하던, 입김 나던 겨울 예비학교가 엊그제 같은데, 훌쩍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여름을 지나고 다시 겨울의 문턱에 다가와 있네요. 적게는 1년 많게는 6년, 그 외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여하 지식정보학부라는 이름아래 몸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다들 2009년을 어떻게 조각하셨고,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학부행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지정인의 밤'행사가 벌써 코앞이네요. 설레는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신 분들도, 노력하는 대학생활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들도, 두근대는 대학생활의 결실을 맺으시려는 분들도 모두에게 가지있었던 2009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2009년 지식정보학부 300인의 대표로서 울고 웃었던 경험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며 '그림비'발간 축하에 이 느낌을 담아 한줄 적어봅니다. 이 글을 통해 1년간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식정보학부 교수님들께, 그리고 못난 학생회장 만나 고생한 지식정보학부 학생회분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정보학부 289명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Thanks for K.I.S

### 부학생회장 조아라

한 해의 마지막 행사인 지정인의 밤을 준비하면서, '1년 참 금방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지정인의 밤에서 26대 학생회라며 인사올린 지가 어제 같은데..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회 막바지가 되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시원한 마음보다는 이제 끝이라는 섭섭함과 더욱 잘 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네요. 사실 부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걱정대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회장님, 겸이 오빠, 윤정이, 왕, 태중이, 혜인이, 가현이, 가희, 수경이, 리나, 혁이! 우리 12명이 서로서 도와왔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26대 학생회. 모두들 1년 동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수고 많았어요!  
♡♡♡♡♡♡♡♡♡♡ 26대 포!!!!!!!!!!렙!!!!!!!!!! 우리 우정 영.원.히. ♡♡♡♡♡♡♡♡♡♡♡♡♡♡♡♡

### 부학생회장 김중겸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리버리하게 학생회를 시작했던 작년 이맘때가 벌써 1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고 잘 하고도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작년의 저를 떠올리면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웃음도 납니다. 방학 때 매일 같이 학교에 나가면서도 즐거웠던 겨울부터 휴학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지금까지 2009년은 특히 저에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가슴 벅찼던 일, 행복했던 순간, 화가 났던 날... 이제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도 많았고 의욕만 앞서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올해는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이 가장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1년 지나면 훌가분하게 끝낼 것 같았는데 무척 아쉽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 끝까지 함께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학생회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 항상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2010년은 더 유쾌한 지식정보학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을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총무 장운정

이 글을 쓰라고 하니 바로 떠오른 생각은 리나랑 상혁이다. 작년에는 그림비를 두 번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제작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을 테니까 말이다. 수고했어. 편집부장, 차장^.^ 음.. 1년 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총무를 하면서 느끼는 걸 말해보면 첫 번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에 비해서 얻은 게 많았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부는 둘이서 이끌어 나가고 부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러웠다. (그냥 그랬다고요. 별건 없음.ㅋㅋ) 처음 시작할 때도 선배가 된다는 게 어색했는데 내년이 벌써 3학년이된다는 게 어색하진 않지만 믿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음 27대 학생회를 맡을 09학번 동생들이 우리보다 지식정보학부를 더 잘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 바바.

### 편집부 부장 심리나

좋은 사람들과 1년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학생회라는 것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다는 의지도 없이 얼떨결에 맡은 편집부 부장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단상에서 '편집부 부장 심리나입니다'를 말하며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한데 이제는 마지막이라니 아쉽지만 합니다. 떨리는 첫 회의를 하고 어색한 첫 회식자리가 엊그제 같은데 '지정인의 밤'행사를 준비하며 제가 주최가 되어 편집부 부장으로서 그림비를 편찬하고 있네요. 이번 2009년 제 26대 학생회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 편집부 차장 이상혁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남은 것처럼 마음은 바쁘게 이렇게 조금은 빠른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며 만 1년간의 학생회활동 마지막 글을 쓰자니 마음이 더 할 나위 없이 싱숭생숭합니다. 2008년 11월에 단상 위에 올라가 부장 리나 옆에서 편집부 차장을 맡게 된 이상혁이라고 어색하기 짝이 없게 인사하던 모습을 지금이라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후기라니, 마치 정신 없이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니 한 해가 모두 가버린 그런 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형들, 누나들, 친구들, 후배들과 이래저래 해왔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져 한없이 슬프습니다. 차라리 정말 꿈이었다면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서 더 아쉽게 써지는 글입니다. 2009년이 가고 우리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원하고자 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기획부 부장 윤태중

짧고도 길었던 1년 동안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 일했던 학생회 임원들 모두 너무나 수고했고 새로운 학생회 후배들 또한 내년에 있을 행사들 잘 치렀으면 합니다.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쌓고 갑니다. 앞으로 많은 후배들과 선배님들이 교류의 장을 펼치는 지정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부 차장 왕윤숙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학생회. 함께 하는게 어색했던 우리였는데 지정인의 밤을 앞두고 이제 아쉬움만 남아요. 좀 더 열심히 참여할걸, 좀 더 잘할걸.. 학생회라는 명목으로 함께 모이고 일했던 지난 시간들이 많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 한마디씩 할래!

무한아라사랑 경민 선배 나 완전 섭섭해! 흥! 2학기에 함께할 수 없었던 중검오빠! 베스트드라이버 겸! 담에 우리끼리 또 놀러갈 기회가 있을까. 누구보다 고생 많았던 아라! 너의 수고와 눈물을 내가 다 보았노라.. 키득! 그럴 때마다 옆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나. 킁킁. 소심하지만 그만큼 세심하고 따뜻한 윤정아! 영원히 기억해라 나의 공로를 또 너네 집 놀러가서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고싶다! 태중아 너 나 왜 그렇게 싫어해? 내가 똥똥해서 그래? 지가 말랐다고... 맨날 구박하고 놀려서 미안해 혜인아! 말 안해도 내 맘 알지? 비타민워터 사줄게! 오빠들이 좋아할 거 같은(경민 선배기준) 가현아! 난 니가 O8 얼짱이라고 생각해. 난 살빼서 O8 몸짱 될거야 푸하하 너랑 갔던 종로탐방은 내 생애 가장 소킹하고 신선했어 또 놀자! 가희야! 니가 물, 불 가릴 때가 아냐! 2010 년엔 우리에게 태양 같은, 이석훈 같은 남친이.. 같은 272 번 버스에서 피곤해도 입만 사는 수경아.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나 봤다고 문자해줬던거 너무 좋았어. 모델 기억지 너무 탐나고 부러운 리나야! 너랑만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거 같다! 나 너한테 어려운 여자니? 나 쉬운 여자야 so ea~sy~ 혁!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토닥토닥해주는 우리 포항똥땡이!

맨날 구박만했는데도 늘 언니야~ 라고하면서 잘 따라줘서 늘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요 교수님! 사랑해요 선배님! 사랑해요 지정

### 문화부 부장 심혜인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올해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09 년, 올 한해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지 작년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학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큐티 문화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장 가현이와 O9 문화부원들이 모여 활력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들과 즐거움을 한가득 얻었습니다. 학생회 임원, 문화부 부장이란 역할이 가끔 버겁기도 했지만, 1 년 동안 함께한 26 대 학생회와 박카스 같은 O9 문화부원 덕분에 웃으면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지식정보학부 파이팅\*o\*!

### 문화부 차장 최가현

작년 지정인의 밤 무대에 제 26 대 학생회로서 인사 드린 것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한 해를 지나 다시 찾은 지·밤을 맞이하여 즐겁고 한편으론 아쉽기도 합니다. 새내기들과 함께하였던 새터, 선후배간의 즐거운 연합애틀, 주점으로 어울린 축제 등 많은 추억들이 스쳐지나가네요. 문화부 차장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잘 따라와준 후배들과 격려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무사히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인이를 비롯해 함께한 26 대 학생회 모두 수고 많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성적 떨어질 때 유지하시는 경민 선배님, 마지막 인천행을 외치는 중검오빠, 실질적 회장같은 아라언니, 해피 바이러스 전도사 윤숙언니, 참석율이 좋아진 태중이, 구박만 당하는 상혁이, 모델 기억지 리나, 울릴 수 있을 것 같은 혜인이, 좀 더 친해지자 수경이, 빨강계 물들은 손 가희, 영수증 끊느라 정신 없는 윤정> 제 27 대의 학생회가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정 파이팅!!

### 선전부 부장 신가희

딱 작년 이맘때 건준위로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의 막연함에서 벗어나 일년의 일정을 무사히 보낸 26 대 학생회로서 이번 지정인의 밤에 인사를 드릴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연하게 찾아온 학생회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학생회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걱정되지만 했는데, 1 년을 함께 잘해보자는 학생회 사람 하나하나의 노력 때문에 의지가 생겼습니다. 정말 학생회 사람 모두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요. 1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내기 때는 몸만 가면 되던 행사였는데, 그 모든 행사가 준비과정에서 있다 보니 막연하고 어려웠습니다. 행사가 즐길 자리가 아니라 일 할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다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인거 같아요ㅋㅋ

### 선전부 차장 이수경

작년 지정인의 밤에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간단한 인사말만하고 내려왔었는데 어느새 다시 지정인의 밤이 다가오고 있네요. 작년에 학생회선배님들이 학생회를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하셔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정인의 밤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지정인의 밤이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학생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보다 즐거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추웠던 날에 팔당에서 우리들의 첫 LT, 매주 방학마다 학교에 나와 열심히 준비했었던 새터, 학생회 모두가 춤 연습했었던 연합 MT, 여름방학에 다 같이 바다를 보고 왔던 여름 LT 등등.. 이런 즐거운 추억들을 학생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회를 이끌어갈 27 대 학생회분들 파이팅





# '바보 노무현' 우리 곁을 떠나다

장수진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2009년 5월 23일 오전 7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서거소식을 처음 접한 많은 이들은 당황해하며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물던 봉하 마을에는 분향소가 세워지고 서울 덕수궁 앞에도 추모 분향소를 세웠다. 약 400만 명의 조문객들은 그를 추모했다. 그가 담배를 피고 싶다는 많은 마지막 말로 인해 많은 분향소에는 담배가 놓여져 있었고, 근조리본 뿐 아니라 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매여있었다. 서거한지 7일후인 5월 29일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영결식을 치루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전에는 여러 갈등이 있었다. 박연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향했고, 결국 그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평소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과 주변 언론의 끝이 없는 스포트라이트로 인해 결국 그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절벽으로 몰아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서울시청광장을 봉쇄하고, 주변에는 경찰차벽으로 둘러싸고 통제하였다. 물론 덕수궁 대한문 앞도 경찰차로 벽을 만들었다. 매우 비좁은 공간이 되어버린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 분향소에서는 많은 이들이 불만 없이 2-3 시간을 기다려 분향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는 많은 추모객들의 항의를 샀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영결식은 경복궁에서 일부 인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노제가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노제에서는 그의 영결식도 중계해주고 그의 생전사진과 활동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며 그를 추모했다. 그를 위한 노란 물결은 서울시청광장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졌고, 영결식이 끝난 후 서울역으로 가는 운구행렬은 그를 보내지 않으려는 추모객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움직였다.

그의 서거 이후 봉하 마을에서의 진솔한 모습의 사진들은 '노간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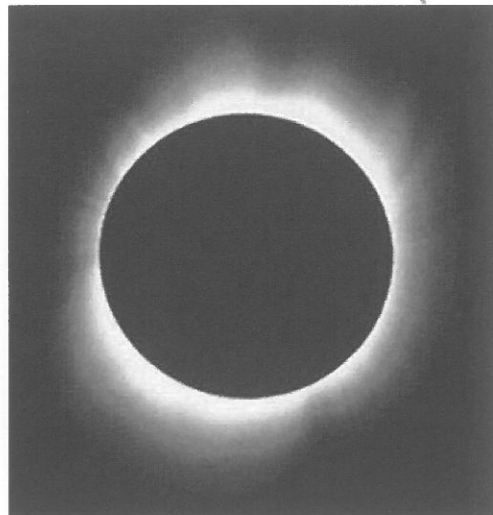
전해졌다.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을 달리고, 손녀들을 위해 자전거도 태워주며, 멋진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아이에게 장난을 거는 다정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그는 국민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과 함께 사진 찍으려는 국민들을 위해 자세를 낮추고, 다정히 말을 걸며, 장난을 거는 사진들도 그와의 이별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 국가의 최고에 있던 그에게 일개의 군인이 아버지라 하며 뛰어나갔다. 어쩔 줄 몰라하던 경호원들을 제제하시고는 그는 그 군인을 "그래 아들이야." 하며 안아주셨다. 그의 모습에 모든 군인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어떤 대통령도 보여주지 않았던 인간적인 대통령이었고, 어떤 실패와 압력에도 자신의 길을 가는 바보였다. 그는 그런 별명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을 정도로 바보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란 물결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 해를 베어 물다 - 개기일식

이현진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7월 22일 인도에서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와 달의 하모니,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이 일어났다.

오전 9시 34분경(서울 기준),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게도 부분 개기일식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개기일식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가서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져 보이는 현상이다. 보통 개기일식의 지속시간은 그 순간의 태양과 달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낮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경우, 해가 완전히 가려져 한밤중처럼 캄캄해지는데, 이는 평소에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코로나 또한 특별한 장비 없이도 관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일식의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

헬리 혜성으로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가 1715년, 영국 남부지방의 일식을 처음으로 예견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당시, 일식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일식이 일어나는 정확한 위치와 시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행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 이 전까지 일식은 월식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예고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가 밝혀지면서, 일식은 무시무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닌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변신했다. 황홀한 개기일식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식은 그렇게 드문 천문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일식은 매년 2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난다. 그럼에도 평생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식을 관찰하려면 상당히 운이 좋아야만 관찰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월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일축된다. 먼저, 일식이 일어 난다해도 지구 표면에 생기는 달의 그림자가 작으면 일식을 관찰할 수 없다. 더불어 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 7분을 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4분 남짓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일식을 관찰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천문대의 말에 의하면 “다음 부분일식은 2010년 1월 15일, 개기일식은 2035년 9월 2일 북한의 평양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일식을 놓치신 이들, 다음 찾아올 일식에 잠시 하던 일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 ※ 일식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

일식으로 인해 태양의 표면이 가려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 빛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눈동자는 확장되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망막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식 중에도 태양필터나 안전장비를 갖추고 관측해야만 한다. 못쓰게 된 필름을 여러 장 겹쳐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안타까운 부분성공

이슬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1단, 2단 엔진분리, 위성분리에는 성공, 페어링 분리이상으로 위성궤도 진입에는 실패.

지난 8월 19일 압력측정 소프트웨어의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된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가 25일 오후 5시에 진행되었다. 처음에 나로호의 발사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성보호덮개인 페어링이 한쪽만 분리되는 이상으로 위성을 목표궤도에 정확히 올려 보내지 못했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2002년 8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를 시작하여 2004년 9월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체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8월 19일 7여 차례의 발사연기 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오후 5시에 발사되었다.

나로호는 100kg급 인공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운송수단으로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가 본체인 나로호에 실려있는 형태로 발사 되게 된다. 나로호의 발사 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우선 이륙 후 20여초 동안 거의 수직으로 비행하여 900m 상공까지 치솟은 후 남쪽 방향으로 비행하기 위해 발사체를 기울이는 킥턴(Kick-turn)을 하게 된다. 발사 후, 약 215초에는 페어링을 전개하고, 약 228초에는 1단과 2단 엔진을 분리하여 1단을 바다에 떨어뜨리며 발사 후 약 395초에는 2단 킥모터 엔진을 점화하고, 이후 약 540초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를 분리한다. 이후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는 지구 저궤도(고도 306km)에 진입하게 되며, 발사 후 40여 분이 지나면 남극을 넘어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야 할 궤도에 진입한다. 발사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약 13시간 후(26일 오전 4시 25분경)에 첫 위성 신호를 탐지하게 된다.

발사의 결과는 처음까지는 성공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당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때 페어링의 분리와 1단엔진의 분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센터의 보고는 오보로 밝혀졌다. 나로호의 발사 과정 중 페어링의 분리단계에서 양쪽이 아닌 한쪽만이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나로호와 과학기술위성 2호가 분리되는 시간도 늦어지게 되어 예상되는 최종분리고도보다 36km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과학기술위성 2호의 위성궤도 진입은 실패하게 되었으며, 궤도를 이탈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우주미아가 되었다.

만약 한국이 이번 나로호의 발사와 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구 소련(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과 함께 10번째로 자국의 우주센터에서 자국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스페이스클럽에 들 수 있는 영예와 함께 세계적인 우주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 기회는 2010년 5월경이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사전에 이뤄진 한국과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발사계약에 따라 나로호의 발사 후 9개월 후인 2010년 5월에 예정된 2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후에 이루어질 발사에는 이번 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기술을 보완하여 궤도진입에 실패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신고 발사될 예정이며, 이번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미디어법 권한 쟁의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김솔(지식정보학부 08 학번)

지난 달 29 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디어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였다.

일단 여기서 미디어법의 실질적인 효과나 뜻하는 바는 얘기하지 않겠다. 실제 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날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정부 쪽 인사는 그쪽의 입장을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 인사는 반대의 입장을 말할 것이다. 설사 어느 한 쪽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어느 쪽의 의견이 맞았는지는 얼마 뒤 결과로 우리 앞에 보여질 때 확인할 일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야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법의 발효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표결 때, 실제의 구체적인 정황은 내가 국회에 있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는 분명히 표결권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판결을 했고 표결권의 침해가 인정되었으면 그 투표는 분명 위법이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와야 할 입법의 효력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행위가 위법일 때, 그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알기 쉽게 바꿔 말하자면 컨닝을 하다 들켰는데 해당 시험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가를 묻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그런데 현재는 컨닝을 한 것은 맞지만 점수는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컨닝을 한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좋은 예는 인터넷에서 아주 잘 비꼬아 놓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찾아봐라. 과정은 불법이나 효력은 유효하다거나 행동은 불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는 이런 판결은 결국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법의 근거와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만든다.

물론 이번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입법절차에 관한 침해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선고의 본질은 권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지 법률의 유효·무효를 따지는 것은 현재의 재량에 맡겨진 부차적인 일'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 정도의 예상도 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볼 때, 이번 선고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헌법재판, 특히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 상호간의 법적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재판의 결론도, 재판의 효력도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련 국가기관의 자발적 준수에 의해서만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런 특성은 이번 사안처럼 국회 입법절차가 문제되는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헌법재판소법 제 67 조에 따라 이번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 (羈束)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국회는 헌재가 확인한 법 위반의 흠을 제거함으로써 침해된 권한질서를 교정할 '법적' 의무를 진다."

위의 말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저 위법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현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결정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 이제 현재의 결정을 따라야 할 국가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며 결국 정의가 아닌 강한 권력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다. 이제 이후의 정치적 향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와 비판도 아닌 모멸을 보내고 있다. 당사자인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정치적 현안들 떠나서 본다고 해도 이번의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판결을 내용음으로서 미래에 역사의 비겁자로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기댈 수 있었던 기둥으로서 기록될 것인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현재는 결국 사회적 의무에 대한 압박과 정치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저런 어설픈 판결을 통해 자신의 껌임을 시인하고 만 것이다. 이로써 실제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는 그 이름에 종래토록 남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그 권위는 힘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당장의 정치적 파장을 피하려 모순된 결정을 하고 어설픈 판결을 했지만 미래에 평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만약 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혹여 그들이 어떠한 압력에 굴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어떻게 법조계의 제일 높은,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생각을 했을까?

결국 현재는 정치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예민한 사안에 겁먹은 개와 같이 몸을 사렸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되는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현재가 오히려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았다.

## SARS 에 이은 새로운 공포 신종인플루엔자.

김영상 (지식정보학부 08 학번)

### 신종인플루엔자란?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약칭 신종플루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까지도 지구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명명한 정식 명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다.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6월 12일 WHO는 신종플루의 전염병 경보를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다. 이것은 대륙간의 감염으로 인한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며, 재채기, 호흡 등과 같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흡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요즘처럼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공기를 통해 옮겨진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입이나 코, 눈 등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 증상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은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기침, 발열, 피로감,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 중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다. 단순한 감기와 증상이 흡사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바이러스는 몸 속에 들어와서 일주일정도 잠복하고 있다가 증상을 보인다. 감염된 사람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불안감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감염자가 약 70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유럽이나 남미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날이 갈수록 감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예방&치료

신종플루는 대부분 공기 중으로 감염되고, 일부는 손을 통해서 감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씻기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실이나 손 소독기 주변에 부착된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보고 손에 묻은 세균을 제대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재채기·기침이 날 경우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꼭 막고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지 가벼운 증상만 있을 뿐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합병증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국에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들이 있으니,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cdc.go.kr/>)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관련정보

#### - 백신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신종플루예산을 삭감했다가, 감염자가 늘어나자 급히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었다. 10-11월에 신종플루가 더 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기에 그 비난은 더 거셌다. 현재 신종플루의 백신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수가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월, 11월쯤이면 백신접종이 가능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이나 돼야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비용문제

신종플루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이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약 10만원 정도를 내야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간단한 감기이거나, 편도염 등이라고 한다.

#### - 플루왕따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요즘, 불안감이 만들어낸 현상 중 하나인 '플루왕따'가 문제되고 있다. 쉽게 말해 신종플루에 걸리거나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상한 병 걸린 사람 취급 하며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염려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 아폴로눈병 급감

신종플루의 예방책 중 하나인 손 씻기의 습관화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아폴로눈병이 유행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행하지 않았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손 세정제나 물비누가 비치되어 있어서 전보다 손을 많이 씻고,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손에 묻은 균이 눈에 들어가는 일이 적어져서 눈병이 급감했다.

#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 해외교환학생 정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공지 (2010-1 파견 해외교환학생 공지)

### 영어권 교환학생 (Exchange / Study Abroad)

#### 1. 교환학생 개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의 학부수업에 참여하며 취득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 2. 지원자격

(1) 교환학생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잔여학기 이수가 가능한 자

(현재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이나 3학년 1학기를 마친 휴학생이 해당되며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생은 귀국 후 추가학기 이수가 가능한자)

(2)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학점평점 2.5이상, 최근 2년내 응시한 공인토플 (IBT) 비점, IELTS 5.0 이상

#### 3. 파견대학

	대학명	자격			선발인원	연간 수업료
		학점	IBT	*IELTS		
일반 (Exchange )	Unitec Institute of Technology (뉴질랜드)	3.0	85	6.5	2명	본교 교 납 부 인문.사회 약 700만원 이공.예술 약 900만원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호주)	3.0	*90	6.5	2명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미국)	2.5	61	5.0	1명	
HGL (Study Abroad)	Montclair State University (미국)	2.5	80	6.5	9명	상 대 교 납 부 \$9,800 (약 1,250만원) \$12,500 (약 1,560만원) \$12,500 (약 1,560만원)
	University of Evansville (미국)	2.5	61	5.5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미국)	2.5	61	5.0		

\* IELTS : Academic Module만 해당

\* 호주 QUT의 IBT자격은 모든 Band 20점 이상

#### 4.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연수계획서, 교수 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학부 성적증명서, 최근 2년 내 취득한 공인 TOEFL 혹은 IELTS 성적표 (원본 및 사본제출,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5. 선발기준

- 학점 (30%) + 어학성적 (30%) + 영어면접 (20%) + 국영문자기소개서 (10%) + 인성면접 (10%)

#### 6. 선발혜택

(1) 왕복항공권지원

(2) 상대교 취득학점 학기당 최대 18학점 본교 인정

(3) 유학생보험구입 (현지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 7.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방법

(1) Exchange Program (일반교환학생) 지원자

- 일반교환학생 지원자는 일반교환학생 선발 탈락시 HGL 교환학생 선발 후보로 자동 분류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지원대학명에 희망하는 대학명 (QUT / Unitec / NKU) 을 입력합니다.

- 전공지원 1지망 탈락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대학명을 입력합니다.

(2) Study Abroad (HGL 교환학생) 지원자

- 일반교환학생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HGL 교환학생 선발기관

(Montclair State Univ., Univ. of Evansville) 에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지원대학명에 희망하는 대학명을 입력합니다.

8. 각 대학별 정보 (위치, 학생수, 개설전공 및 과목 등)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서류제출 및 문의처

- 국제교류팀 : 우촌관 3층 종합행정실내 (760-4266, 담당자: 김일환)

### 중국/일본 교환학생

#### 1. 중국 / 일본 교환학생 파견 개요

1) 파견 프로그램명 : 20109학년도 1학기 파견 중국 / 일본 교환학생

2) 파견 정원 : 13 명

#### 2. 파견 내역

국가	대학교명	인원	기간	파견조건
중국	북경화북전력대학교 (북경시)	2	2010.3 ~ 2011.2	·본교 등록금 전액 납부 ·상대교 등록금 전액 감면
	북화대학교 (길림성 길림시)	3	2010.3 ~ 2011.2	
	장춘세무대학교 (길림성 장춘시)	3	2010.3 ~ 2011.2	
	합비대학교 (안휘성 합비시)	2	2010.3 ~ 2011.2	
	길림예술대학교 동화대학교 (장춘시)	2	2010.3 ~ 2011.2	
일본	야마구치복지문화대학교 (야마구치현)	1	2010.4 ~ 2011.3	

\* 공통 사항 : 숙박, 식비, 교재비, 생활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임.

### 3. 선발 혜택

- 1) 1학기 최대 18학점, 연간 35학점 인정 (개인별 차이)
- 2) 왕복항공권 지급
- 3) 유학보험 가입 (해외교 건강보험은 학생부담)

### 4. 지원 자격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했고, 연수종료 후 본교에서 1학기이상 수학 가능한 자

※ 일반적으로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학생

2) 학부 성적 총평점평균 2.5 이상 (신청학점 기준 : F학점 포함 산정)

3)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 중국의 대학교는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원칙적인 입학자격은 인문사회계열 HSK 6급 이상, 예술공과계열 3급 이상 소지자이지만, 자매결연대학과의 합의에 의해 교환학생은 비해당), 일본의 대학교도 공인성적 없어도 무관 (원칙적인 입학자격은 일본어능력시험KLPT 2급 이상 소지자이지만, 일본어 학습경력 이력서 등으로 대체 가능함)하다.

4) 지원대학에 본인의 전공이나 유사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5) 해당 학부(과) · 전공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6)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8)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력이 없는 자 (지원은 가능하나, 선발시 심층 면접 예정)

※ 자기소개서 첫 줄에 참가 이력을 기재하기 바람

### 5. 교육 과정

1) 1학기 - 어학수업 and/or 전공수업

2) 2학기 - 전공수업

※ 중국어, 일본어가 능숙한 학생은 1학기부터 전공수업 수강 가능함

### 6. 지원 서류

1) 지원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작성 및 출력, 증명사진 1매 부착)

2) 자기소개 및 연수계획서 (종합정보시스템 작성 및 출력)

3) 교수 추천서 (첨부된 소정양식)

4) 보호자 동의서 (첨부된 소정양식)

5) 학부 성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누적성적 출력)

6) 어학 공인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원본도 제출하되 제출시 확인후 바로 반환함)

7) 여권 복사본

※ 지원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함. (지원신청 방법은 별첨 설명)

### 7. 선발심사 방법

1) 1차 서류전형 (50%) : 어학공인성적, 학점, 자기소개 및 연수계획서

2) 2차 시험/면접전형 (50%) : 외국어 구술/필기 시험, 일반 면접

※ 선발심사 방법은 지원 경쟁률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경쟁률이 높을 경우에만 구술/필기시험)

※참고 : 국제교류 홈페이지 : <http://www.hansung.ac.kr/~overseas> (접속 후 좌측 하단, 회원가입 하여야 함)

##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장학생 정보

### 면학(근로)장학생 ex) 09-1학기 면학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09- 1학기 재학예정인 가사곤란자

2. 장학금액: 시간당4,000원

3. 근무시간

- 행정부서 등: 주5일, 일/4시간, 학기 중 총 316시간

- 학과사무실 등(실습실): 주5일, 일/3시간, 학기 중 총 237시간

※ 근무시간 및 조건 등은 해당 지망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4.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hansung.ac.kr/servlet/s\\_gong.gong\\_login](http://www.hansung.ac.kr/servlet/s_gong.gong_login) 로그인 후

→ 면학 지원 신청란을 통해

→ 근무 희망부서를 1,2,3지망 입력 후 저장

5. 선발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기준 선정학생 개별 연락 통지

※ 선발관련 문의: 신청 부서 면학장학생 담당

### 한성복지장학금 ex) 09-2학기 한성복지장학생 선발 안내

우리 대학교의 장학제도에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한성복지장학금이란 명칭의 가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선발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이며 과락이 없는자

2. 장학금액

- A 등급-150만원, B 등급-120만원, C 등급-80만원

3. 제출서류

- 한성복지장학 신청서 1부 (전산입력 출력분)

- 한성복지장학 신청사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제한시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성적증명서 1부

- 평가배점표 해당 서류 각 1부(해당자)

4. 선정방법: 가사곤란척도 고득점자 순 등급별 선정

5. 제출처: 학생지원팀 (전화: 760-4222)

**한성디지털탈렌트장학금 ex) '09-2 학기 한성디지털탈렌트 장학생 선발 안내**

1. 장학금: 등록금 전액
  2. 선발인원: 34 명
  3. 신청대상
    - 1, 2 학년
      - 가. 소학년 평점평균 3.80 이상,
      - 나. 직전학기 18 학점이상 취득자
      - 다. 사회봉사 5 시간 이상인 자
      - 라. 외국어(토익, 토플, 텡스) 점수 보유자
    - 3, 4 학년
      - 가. 소학년 평점평균 3.80 이상,
      - 나. 직전학기 15 학점이상 취득자
      - 다. 사회봉사 5 시간 이상인 자
      - 라. 외국어(토익, 토플, 텡스) 점수 보유자
  4. 제출서류
    - 가. 한성디지털탈렌트 장학생 신청서 1부
    - 나. 소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다. 사회봉사 시간 확인서 1부 ('09. 1.14~신청일)
    - 라. TOEIC, TOEFL, TEPS 성적 확인서 1부(최근 2년이내)
    - 마. 기타 자격증 사본 1부(별지참조) - 해당자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선정방법: 선발배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선발 - 별지참조  
(성적, 봉사, 외국어능력 점수 배점시 보간표를 참조해 작성할것)
  6. 제출처: 학생지원팀 - 창의관 1층
  7. 전화: 760-4222 (학생지원팀)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진학생을 위한 수업 정보**

**-2 학년 1학기**

**기록관리개론**

모든 기록의 수집 및 평가, 정리 및 보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기록 보존관리의 역사와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어서 기록물의 평가선택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경영론**

도서관 경영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계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기능을 살피고, 이를 도서관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시킴으로써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의 바탕을 마련한다.

**독서교육론**

독서교육의 이론과 현장지도에 보탬이 되도록 독서의 개관, 독서교육의 개념, 계획, 방법, 독서자료,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교육평가 등을 다루어 독서교육이 이론에 바탕을 둔 생활지도로서의 장이 되게 한다..

**메타데이터의 이해**

네트워크자원의 기술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메타데이터의 종류, 기술요소와 구조, 태깅 및 매핑기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상이한 메타데이터의 통합, 메타데이터간의 연결구조 및 국제적인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장서관리론**

도서관 형태에 따른 도서관장서의 운영, 개발, 이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원리와 여러 대안점을 조사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장서개발 및 선택의 근거가 되는 이용자 연구방법, 거시적 장서개발정책, 자료선택방법, 수서업무, 장서평가 및 폐기 등을 고찰하여 이 분야의 이론적 개념과 실용적 방법을 이해시킨다.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제반 현상을 다룬다. 특히 도서관 정보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자료분류론**

학문 및 자료분류 원리를 개관하고 세계 주요분류표의 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며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분류표를 선정, 다양한 분류실습문제에 의한 분류실습 연구로 정보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3 학년 1학기**

**기록관리시스템론**

기록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제공시스템의 구성체계와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에 대한 운영기법을 다룬다.

## 디지털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론에서는 아날로그 도서관 시스템은 물론, 현대적인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참고정보서비스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정보사서의 서비스철학을 중심으로 봉사의 의의와 중요성 및 서비스 방법과 목적,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사서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정보제공서비스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정보이용상에 야기되는 Q&A에 대한 참고면담 기법과 탐색방법 등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 웹문서구축론

본 수업에서는 웹문서구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국내외 사례를 교수하여 웹문서구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효율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 이용자인터페이스론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 분석 및 설계, 평가, 정보검색에서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 인문사회정보원

인문학과 사회과학 정보원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원의 수집에서 서비스 제공 준비에 이르는 학술 정보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 정보검색론

정보검색전문가로서의 자질 육성을 위한 정보검색의 이론, 모형, 수단, 검색방법 등을 연구하며 정보검색시스템의 구조,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설계 및 평가를 다룬다. 정보검색기술연구는 검색시스템 설계 전문가로서, 웹정보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학년 1학기

### 고전자료조직론

동양 고전자료(동장본 고서)에 대한 특성을 강설하고 고서분류의 개념과 범위, 사부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을 비교하여 고서분류의 이론과 실재를 강독한다. 고서목록은 국제서지기술원칙을 적용하여 기술하는 방법과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독자개발하여 조직하는 법의 이론과 실재를 강독한다.

### 정보이용자연구론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환경내의 정보이용자행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발전과의 연계를 모색함.

### 지적재산권론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특히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규정을 이해하고, 도서관상호대차, 디지털도서관 구축 등의 도서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국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2009년도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우리 학교 시설 이용 방법

박성환 (지식정보학부 09 학번)

### -스터디 라운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학습활동, 회의 및 세미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관 지하 1 층에 있다. 이용방법은 출입시 이용자일지를 작성하면 되고 2 층 세미나실은 5 인 이상, 최대 2 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순서는 선착순이다. 단, 수업이나 행사가 잡혀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 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학 중 토요일에 개방하지 않는다.

### -체력 단련실

낙산관 4 층에 있으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헬스 기구와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간편한 운동복 차림과 실내용 운동화를 갖추고 사용하면 된다. 학기 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건강관리실

창의관 1 층에 있는 곳으로 재학생인 경우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상담과 진료의뢰, 보건교육과 보건통계,약품조제와 투약 등이 있으며 주로 심신이 피로하거나 육체적 고통이 있을 시, 또는 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 간단한 양약 처방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다.

### -학생상담실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찾아가면 된다. 우촌관 2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격진단검사,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자아개념검사, 자아실현검사, 욕구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적성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 이화방어기제검사, 갈등관리유형검사 등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상담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담(760-4171),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하면 된다.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다.

### -의화장

한성대학교 수련장인 의화장은 학과, 동아리 등의 MT 등을 위한 장소이다. 규모는 6실에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사용 신청을 하려면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 첫째 주에 취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취업지원팀 전화 760-4223) 주소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81-4이며 교통 이용 방법은 지하철 중앙선을 이용하여 팔당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기타 시설들을 대여하는 곳은 학생지원팀이며 창의관 소강당, 낙산관 체육관, 대강당, 연구관 전시실을 대여 할 수 있고 기타 강의실은 학사지원팀, 운동장은 총무인사팀에서 대여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학교 공식행사, 수업, 다수 학생 참가 행사, 학생 행사 순이다. 학교 시설공간 대여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 첫째 주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글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였으면 한다.



# 편집부 마감 후기

## 08 심리나

선배님들의 지시아래 기사만 써서 넘겼던 1학년 때와는 달리 이제 제가 주체가 되어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그림비를 만들다 보니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쏟았는지 새삼 느낍니다. 이런 그림비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 주셨던 유리선배님, 지영선배님, 인영선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절 믿고 따라준 동기, 후배들에게 고맙고, 더 잘하고 싶은데 의지와는 다른 그림비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창피하네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림비가 되길바랍니다.

## 08 이상혁

애송이 신입생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후기를 세 번째 쓰게 된 중견 편집부원이 된 것 같아서 왠지 싱숭생숭합니다. 두 번의 후기에는 선배님들의 이끌어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후배들을 이끌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많이 느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의 그림비는 리나와 저의 손이 아닌 후배들의 노력으로 탄생할 것이기에, 직접 기사를 쓰는 마지막 그림비라는 사실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2009년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새로운 후배들과 모자라고 부족한 차장을 이끌고 고생한 부장 심리나에게 감사하고 잘 따라와준 우리 09학번 편집부원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포함합니다.

## 08 김솔

이번에 그림비 기사를 내고 나서 많이 불안했다. 급작스럽게 만든 것이라 내용이 허술한 것도 이유지만, 주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것이라 일방적으로 들어간 나의 주장에 읽는 사람이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더 큰 이유였다. 그래서 적어도 편향된 시각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신문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얇은 지식을 토대로 썼을 뿐이다. 그런 만큼 글의 깊이가 없으니 혹여 크게 반응하지 말고 가볍게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 08 김영상

오랜만에 쓰는 그림비 기사다보니,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이내 금방 쓸 수 있게 되었다. 올해의 핫이슈를 대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신종플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쓰게 되었다. 신종플루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있으니 걱정이 늘어난 것 같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 08 이슬

잘 써야겠다고 썼는데 항상 부족해 보이는 현실;;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bb

## 08 이현진

쓸 때마다 퇴화해가는 것 같은 글 실력에 눈물만 납니다 ;ㅂ; 그래도 파이팅!

## 08 장수진

또 하나의 그림비가 나왔다^^ 뭔가 하지 않았다는 느낌인데 그림비가 완성됐다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하다. ^^ 사실 뭐라고 했는지 도저히 생각나질 않는다. ^^ 정성이 부족했나보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기사를 쓰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몇 번이고 신문 기사를 찾아봐야 했는데 조금은 부끄럽다.

## 09 강운석

나는 이번 1년 동안 편집부생활을 하였다. 힘들게 들어온 부서라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늦게 들어온지라 비록 회식은 못했지만 선배님들 동기들 모두 좋은 분들이다. 축제 활동을 하거나 그림비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글을 쓰는 등 편집부는 나에게 편집부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 할 값 진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 나는 편집부에 들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 09 김영은

그림비 기사에서 강순애 교수님의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려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에 생소함도 느꼈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무사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인터뷰를 맡은 친구들과의 협동도 잘 돼서 더 순조로웠던 것 같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편집부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 09 김재오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일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됐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쓸 일이 생겼을 때 이번 기사를 쓴 일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09 박성환

별로 한건 없어도 이렇게 무언가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다는 게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집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그림비. 많은 지정과 여러분들이 이 그림비를 보고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합니다.

## 09 박수현

부장 리나선배님과 차장 상혁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별로 도움이 못되어서 선배님과 동기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도 편집부 생활하면서 첫 1년 즐겁게 보냈어요! 편집부 파이팅!

### 09 박혜정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많이 낯설고 소속감도 없었는데 편집부에서 활동하면서 1년 동안 편집부로서 축제도 보내고 그림비 기사도 쓰면서 많은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다. 참 좋은 동기도 많고 좋은 선배도 많은 편집부에 들었다는 게 나름 자랑스럽고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집부와는 다르게 나의 흔적이 녹아있는 무언가를 남겨서 뿌듯하고 편집부 때문에 암울했던 1학년이 아니라 활기찼던 1학년을 보냈던 것 같다!!!! 10 학번 후배도 그 뒤에 후배들도 우리 편집부에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 09 배우리

고등학교 때 동아리나 외부활동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에 와서 편집부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책을 엮어간다는 것에 어려울 것 같기도 했지만 직접 인터뷰도 하러 다니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 더 친해진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지정학과에 대해서 더욱 애착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09 서정인

허겁허겁 누덕누덕 기워서 편집한 나의 글이 그림비에 올라가 모두가 본다고 생각하니,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손발이 오그라들며 눈앞이 빙빙뱅뱅도는 것이 심상치 않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과제의 산에 파묻힌 지정과의 불쌍한 한 학생은 부끄러움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자 4 대강 살리기 삽질판에 라도 가서 삽 하나 쥐고 쥐구멍을 파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조잡한글이나마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시는 지정과 여러분과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특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가현선배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만 줄입니다.

### 09 이수연

교수님과의 인터뷰로 뜻 깊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고 글도 쓰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편집부에 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글을 쓰면서 즐거웠습니다.

### 09 이주원

처음 하는 인터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배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구요. 제가 인터뷰 답글을 늦게 받아서 일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림비 화이팅!!

### 09 임우경

아,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그림비" 라는 것이 정말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몰랐던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한 것은 좋은 경험 경험이었다고 같아요. 다만, 제가 쓴 글이 실린 책자가 나온다는 것은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워서 직접 볼 용기는 나지 않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림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09 홍승리

편집부원이라 인터뷰를 해보고 기사도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기사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상혁 선배님과 인터뷰 내내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이백록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VITAMIN 편집부

편집부장 : 08 심리나

편집차장 : 08 이상혁

편집부원 : 08 김영상, 김 솔, 안은지, 유솔지, 이인규, 임소영, 이 슬, 장수진, 전지원, 하늘빛

새내기 기자단 : 강윤석, 김영은, 김재오, 박성환, 박수현, 박혜정, 배우리, 서정인, 이수연, 이주원, 임우경, 홍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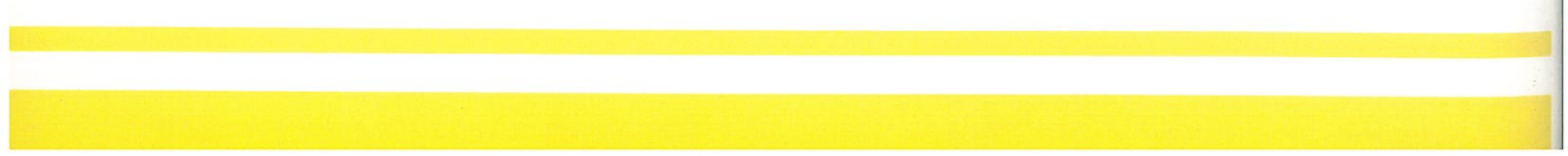


발행일: 2009년 11월 10일  
발행처: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발행인: 08 심리나

2009



2009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2009

2009



# 그림비

2009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 I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지식정보학부
- II 백화만발(百花滿發), 우리의 이름은 지정인
- III 2009년의 지식정보학부
- IV 아는 것이 힘! 한성 호그와트
- V 다사다난(多事多難)의 2009년
- VI 해피엔딩

2009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